

6·3 지선...참일꾼 찾자

〈6〉 전남 5개 군수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도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 단위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과 지역 인맥, 당내 경선 여부, 무소속과 제3지대 변수 등이 총총히 맞물리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각 군별로 누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경쟁 구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본다.

안정이나 변화냐...유권자 표심 향배 ‘주목’

곡성군수

조상래 군수, 재선 도전장
민주 내부 경쟁·3지대 변수

2024년 10월 재선거를 치른 곡성군이 불과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군수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판세는 단순하지 않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재선 도전과 민주당 내부 경쟁, 여기에 제3지대 변수까지 겹치며 선거 구도는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5명이다. 재선거를 통해 군정을 맡고 있는 조상래 현 군수를 중심으로, 강대광 전 군의원과 강덕구 군의장, 이성로 곡성미래연구소장, 조국혁신당 박용두 곡성·구례지역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후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이 5명이 사실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상래 군수의 최대 강점은 ‘현역 프리미엄’이다. 전 군민 버스 무료화, 군민 기본소득,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제

도입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주시킨 점도 주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다만 수의 계약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은 선거 국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대광 전 군의원은 민주당 내 도전 카드로 꼽힌다. ‘청렴·능력·화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역과의 같은 당 경쟁을 선택했다. 5·6·7대 군의원과 군의회 부의장, 민선 8기 군수 인수위원장과 공약이행평가단장을 지낸 이력은 행정 이해도와 실행력을 강점으로 만든다. 민주당 경선이 현실화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6월 민주당에 입당한 이성로 시장은 AI·ICT 기반 기업 유치와 관광 AI 산업과의 연계, 농림축·관광을 결합한 ‘10차 산업’ 구상,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구조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강덕구 곡성군의장도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민심을 살펴며 출마를 저



조상래



강덕구



강대광



박용두



이성로

을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지대 대표 주자인 박용두 위원장은 지난 재선거에서 30%대 중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뚜렷한 존재감을 남겼다.

곡성군수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안정 대 변화’의 구도다. 군정 성과를 앞세운 현역 프레임이 힘을 얻을지, 아니면 재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변화 요구가 다시 표심으로 이어질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혁신당 vs 민주당...치열한 본선 승부 예고

담양군수

정철원 현 군수에 맞서
민주 후보 대거 출마 전망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정철원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는 증진과 신에, 중앙 정치 경험을 앞세운 인사들까지 잇따라 출마 준비를 갖추며 다자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던 담양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정 군수가 당선되며 정치 지형이 한 차례 흔들린 바 있다.

정 군수는 제7·8·9대 담양군의회에서 두 차례 의장을 지내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규현 전남도의회는 담양군의 회 3선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인물로, 담양군 농민회장, 예술인협회장, 대나무축제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농업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행보를 보여왔고,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문화자원의 산업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철원



김정오



김종진



박종원



이재중



이규현



최형식



최화삼

박종원 전남도의회는 4선 경력의 중량감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 담양군의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농업·복지·SOC 분야에 성과를 쌓았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도 강점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세대교체 요구가 커진 분위기 속에서 경륜을 넘어선 변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풀뿌리 정치인이다.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중앙 정치 경험을 내세운 이재중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가 유력하다. 지난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기반을 다지며 재도전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재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던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무소속 출마설도 흘러나온다. 이 밖에도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과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담양=최성용 기자 jnwnews@

정책 비전이 승부처...다자구도 양상 뚜렷

장성군수

민주당내 치열한 경선
조국혁신당 후보와 본선

올해 치러질 장성군수 선거가 일찌감치 다자 구도로 재편되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선에 나서는 김한중 현 군수를 중심으로 박노원 전 장성 부군수,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준비하고 있어 선거 구도는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김한중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 서비스 확대, 문화·관광 자원화를 군정의 핵심 축으로 설정해 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고,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노원 전 부군수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혁신도시 건설 실무와 투자 유치, 지방행정 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정

책 설계와 집행 경험을 쌓았고, 장성군 부군수 재임 시절에는 군정 전반을 실무적으로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성수 전 도의원은 교육위원장 활동과 당내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체육·교육 현장에서의 꾸준한 활동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에너지 연금 도입, 어린이병원 유치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소영호 전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 전남도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산업·경제 정책을 설계해 온 인물이다. 전략산업국장 재임 당시 바이오·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성의 산업 구조 재편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치과의사 출신인 정진남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김왕근 전 민주평통 장성군협의회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경선 결과와 제3정당의 본선 도전이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정책 실행력과 장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가르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계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이번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김한중



김왕근



박노원



소영호



유성수

보고 있다. 후보 간 경력과 인지도가 비교적 비슷한 만큼 조직력과 경선 과정에서의 메시지 관리, 핵심 공약의 차별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직 군수에 대한 평가와 변화 요구가 어떻게 맞물릴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후보의 득표력이 확장될 경우, 본선 구도 역시 다자 경쟁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함평군수

이상의 3선 가도에 4명 도전
혁신당과 치열한 승부 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수 선거에 나설 출마자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물은 3선에 도전하는 이상의 현 함평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이윤형 전 함평군수, 정철의 전 전남도의원, 조성철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 모두 5명이다. 현직과 리직, 중앙과 지역 경험이 교차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군민 표심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이상의 군수다. 그는 2020년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군수에 오른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선다. 두 차례 연속 군정을 이끈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간의 군정 성과와 한계가 그대로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특히 오는 22일 뇌물수수 의혹

사건 혐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이상의 군수 외에 이상일 특별위원, 정철의 전 도의원, 조성철 전 자문위원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 주자만 네 명이 경쟁하는 형국이다. 경선 과정이 흥행할 경우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과열 양상으로 흐를 경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상일 특별위원은 지역 내 접촉을 늘리며 사실상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 재정 구조에 밝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철의 전 도의원은 광역의회 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역량과 예산 확보 경험을 앞세워 군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조성철 전 자문위원 역시 대통령직속 기구에서의 정책 자문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제3세력의 움직임도 변수다. 조국혁신



이상익



이상일



이윤형



정철의



조성철

당 소속의 이윤형 전 군수는 과거 군정 경험을 강점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는 강점이지만, 재임 시절에 대한 평가 역시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제3정당 후보라는 차별성은 일정 부분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과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핵심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민주당 수성 시험대...현안 해결법 제시 ‘쟁점’

영광군수

민주당내 다자 경선 관심
진보당·혁신당 재도전 변수

영광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성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광은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군수가 두 차례나 배출될 만큼 정당 구도보다 인물 경쟁이 강하게 작용해 온 지

역이다. 최근 재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조국혁신당과의 치열한 3파전 끝에 가까스로 군수 자리를 지켰다.

장세일 현 군수는 재선 도전에 나선다. 그는 재보궐선거에서 41.08%를 득표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취임 이후 짧은 임기에도 국비·공모사업 1000억원 이상 확보,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선정, 어르신 버스 무료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대표 성과로 내세운다.

민주당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재보

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이동권 전 전남도의회이 재도전에 나섰고, 김한균 영광군의원도 도전장을 냈다.

이동권 전 도의원은 3선 광역의원 출신으로 지역 현안에 밝고,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운다. 김한균 군의원은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온 점을 강점으로 꼽힌다.

정치 신인들도 가세했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도시재생과 관광 정책 분야에서의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근철 영광가치포럼 대표 역시 지역 정책 담론을 앞세워 당내 경선 참여를 준비 중이다.

아래의 움직임도 변수다. 진보당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30%가 넘는 득표율로 존재감을 드러낸 이석하 영광군위원장이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원식 지역위원장과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장현 전 후보가 거론된다. 이들이 본선에 나설 경우, 지난 선거와 유사한 진보 진영 내 다자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과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임시저



정세일



김한균



김혜영



이동권



이근철



정원식



장현



정원식

이현규 기자 gnnews1@영광=정규필 기자 ykjp98@